

# 현안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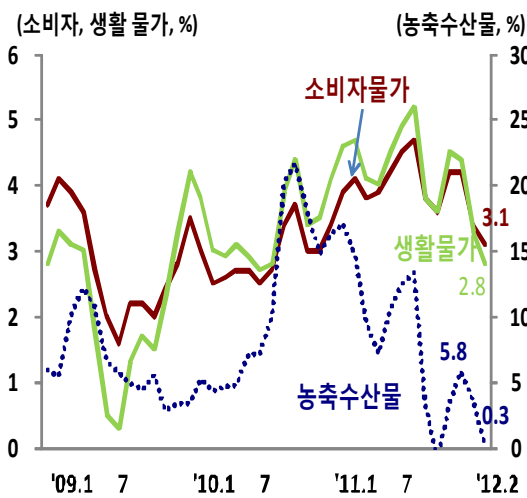
| 물가 상승 압력 여전히 높다

## 1. 최근 물가는 안정세

### ○ (현황)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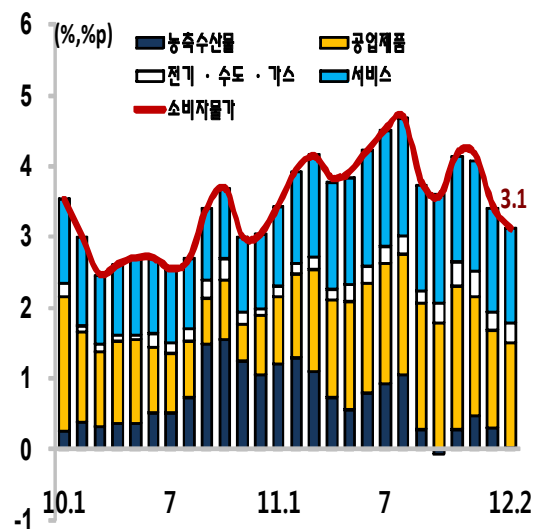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 지수가 최근 2개월 연속 3%대 중반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
  - 농축수산물 가격은 2011년 12월 전년동월대비 5.8%를 기록했으나 2012년 1~2월 평균 2.0%내외로 하락
  - 또한,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는 최근 2개월 3.3%, 2.8%로 소비자물가를 하회
  - 국내 대표 물가 지수인 소비자물가 지수는 2011년 연간 4.0%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1월과 2월 각각 3.4%, 3.1%로 안정
- 그 동안 물가 상승을 주도한 농축수산물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하락함
  - 농축수산물 부문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2월 11.1%에서 2012년 1월 8.8%, 2월 0.6%까지 하락
  -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석유류를 포함하는 공업제품과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1월 80%를 넘어 2월에 90%를 상회

<소비자, 농축수산물, 근원 물가 추이>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부문별 기여도>



자료 : 통계청.

## 2. 물가 상승 압력은 상존

○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거나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은 높은 수준임

### ① 비용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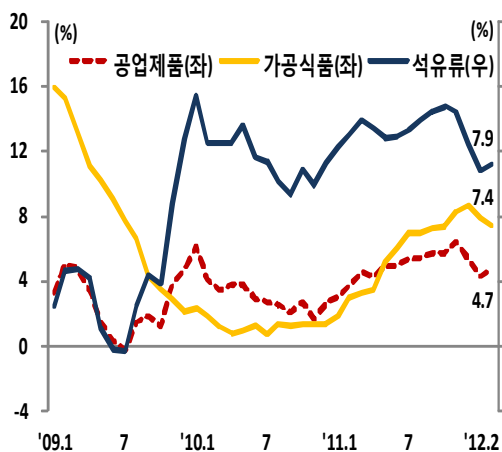
○ (공업제품 가격 상승)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이 재상승하고 있어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공업제품은 높은 수준의 원유 가격으로 인한 석유류의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전월대비 상승
- 석유류 제품은 최근 8%에 근접한 증가율을 보이고 공업제품도 5%에 근접한 증가율로 상승세를 보여 향후 물가 상승에 기여할 것임

○ (공공 요금 인상) 원가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여파<sup>1)</sup>

- 도시가스 및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은 높은 수준의 인상이 실현됨
- 전기 요금은 2011년 1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전년동월대비 2.0% 증가율 지속
- 도시가스 요금 증가율은 2011년 11월, 12월 각각 14.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2012년 1월과 2월에도 10%에 근접한 증가율을 기록
- 시내버스 요금은 최근 3개월간 전년동월대비 6.5%이상을 기록. 최근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이효과가 우려

< 공업제품, 가공식품, 석유류 물가 증감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 주요 공공 서비스 부문 증가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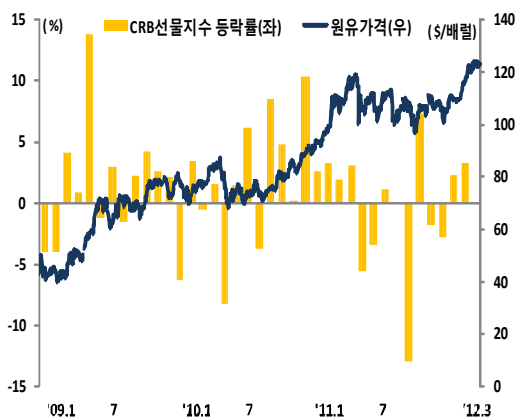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1) 공공요금 인상은 상품의 원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 공공요금이 10% 상승하면 생산자물가는 1.85%, 소비자물가는 2.24% 상승함으로써 소비자물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침(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2010).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

- 호르무즈 해협 위기 악화 가능성 등으로 인한 국제 원유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 불안에 영향을 줌
  - **CRB선물지수** : 2012년 1월 전월대비 2.3%, 2월 3.2%로 증가율 폭이 확대되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원유** : 두바이유는 3월 현재 배럴당 123.0달러 내외로 2011년 12월 배럴당 105달러 내외 대비 17% 상승
  - 국제유가가 10% 상승 시 국내 소비자물가에 0.33%p 상승만큼 영향을 줌<sup>2)</sup>
  
- 신흥국의 원자재 수요가 유지되고 있어 곡물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원자재** : 경기와 가장 관련이 큰 구리가격은 2012년 3월 현재 톤당 8,490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안전자산 선호 증가로 인해 금값은 2012년 3월 현재 온스당 1,684달러를 상회
  - **곡물** : 대두 가격은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및 중국의 수입 증대 가능성 등으로 2012년 3월 현재 부셸당 1,369센트를 상회

<CRB선물지수 등락률 및 원유가격>



자료 : Reuters, Petronet.  
주 : 원유가격(\$/bbl).

<원자재 가격 추이>



자료 : Reuters, LME(London Metal Exchange).  
주 : 구리(\$/ton), 금(\$/Oz), 대두(\$/bu).

2)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이 실현되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최악의 경우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평균 160달러에서 210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현대경제연구원, “재스민혁명으로 인한 유가급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1년). 한편, 국제유가가 10% 상승 시 국내 소비자물가가 0.2%p 상승만큼 영향을 줌(한국은행, “유가상승 충격의 요인 분해와 시사점”, 2008년 4월).

□ 해외발 비용의 물가 전이

○ '수입-생산자-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해외발 비용 상승 요인이 국내 물가로 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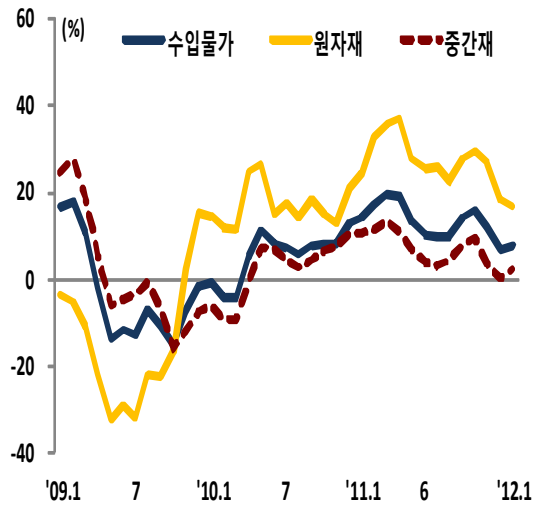
-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높은 수입 물가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에 순차적으로 상승 요인으로 작용
  - 물가 전이 과정 :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높은 수준 기록. 이로 인한 수입 비용 증대는 생산자 물가 상승 그리고 시차를 거쳐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짐
  - 수입 물가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 등으로 2011년 12월 전년 동월대비 11.8%를 기록한 후 2012년 1월 7.1%, 2월 7.9%로 높은 수준 유지<sup>3)</sup>
  - 생산자 물가는 수입 비용 증대 등으로 인해 2012년 1월 전년동월대비 1월 3.4%, 2월 3.5%로 재상승하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sup>4)</sup>
  -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입 및 생산자 수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회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sup>5)</sup>
- 특히, 수입 물가 세부 항목 중 원자재 가격 지수가 최근 3개월 연속 16% 이상을 지속하고 있어 국내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
  - 원자재 수입 물가 지수는 2011년 12월 전년동월대비 26.9%에서 2012년 1월 18.3%, 2월 16.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수입, 생산자, 소비자 물가 추이>



자료 : 통계청.

<수입 물가와 세부 항목 추이>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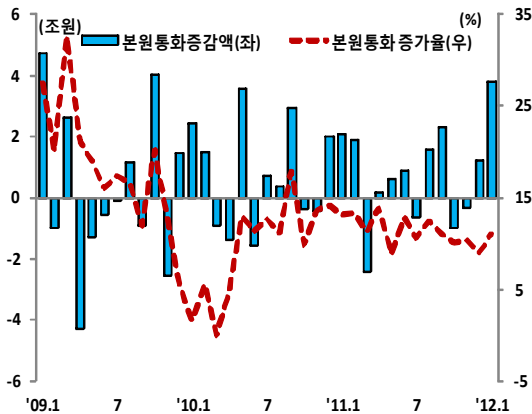
3) 수입물가는 2011년 1월 전월대비 0.2%, 2012년 1월 0.8%로 상승세임.  
 4) 생산자물가는 최근 3개월간 전월대비 0.2%, 0.7%, 0.7%로 상승세임.  
 5) 소비자물가는 최근 3개월간 전월대비 0.4%, 0.5%, 0.4%로 상승세를 보임.

② 수요 측면

○ 국내 통화량 증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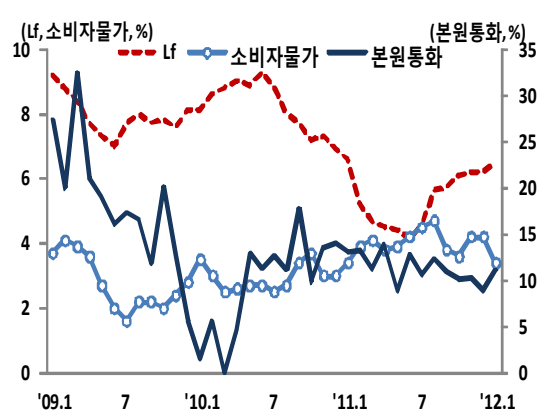
- 2012년 국내경제는 유동성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잠재
  -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 시중에 공급된 본원통화 증가율은 최근 4개월 평균 10%내외 기록. 이러한 증가율은 명목 GDP증가율인 2011년 2/4분기 5.0%, 3/4분기 5.4%를 크게 상회
  - 본원통화는 2009년 상반기말 60조원 내외에서 2012년 1월 현재 82조원 내외로 크게 증가
- 금융기관유동성(Lf)<sup>6)</sup>의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음<sup>7)</sup>
  - 금융기관유동성(Lf)은 2012년 1월 2,294조 원으로 최근 4개월간 6%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하여 명목 GDP 증가율을 상회
  - 한편, 광의통화(M2) 규모는 2012년 1월 1,759조 원으로 최근 4개월 연속 4% 중반 증가율 지속<sup>8)</sup>

<본원통화 증감 및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본원통화잔액은 평잔기준.

<소비자물가, 본원통화, Lf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M2와 본원통화는 평잔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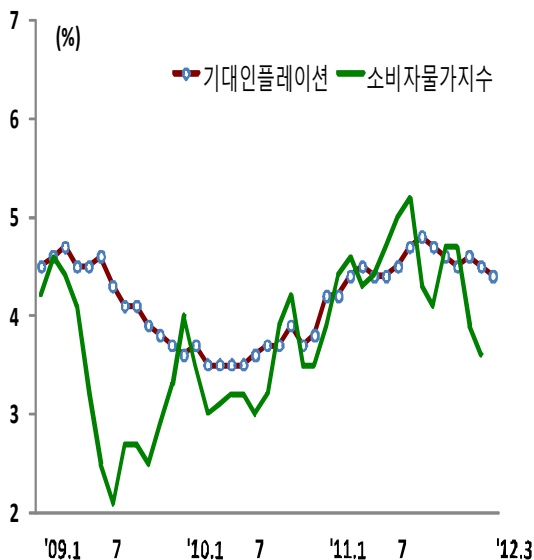
- 6) 협의통화(M1)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예금을 더한 것으로 정의. 광의통화(M2)는 협의통화(M1)에 예금취급기관의 정기에금, 시장형금융상품, 실적배당형금융상품, 기타 예금·금융채를 포함한 개념임. 정기적금금융기관유동성(Lf)는 광의통화(M2)에 생명보험계약준비금, 채권금융예수금, 2년이상 장기금융상품 등을 포함.
- 7) 국내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동성의 크기를 의미하는 광의유동성(L, 원계열, 말잔기준) 증가율은 최근 4개월 연속 9%내외 유지. 총규모는 2009년 상반기말 2,415조원에서 2012년 1월 2,989조원으로 21.9% 증가.
- 8) 광의통화(M2)는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인플레이션 위험은 여전히 상존

### ③ 물가 불안 심리 측면

#### ○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예상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 등으로 연평균 4.0%내외로 높은 수준 지속
  - 소비자들은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현실화됨에 따라 향후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에까지 물가 상승이 전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들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월 4.1%, 2월 4.0%, 3월 3.9%로 소비자물가를 1월 0.7%p, 2월 0.9%p 만큼 상회하고 있어 가수요를 유발하여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소비자들은 향후에도 물가수준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향후 물가수준CSI는 2012년 들어 140이상으로 기준점을 100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물가가 현재보다 더 오를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반면,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2012년 3월 현재 82로 국내경기가 현재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임

<소비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기전망 및 물가수준 전망 CSI>



자료 : 한국은행

### 3. 사전적 대응 과제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 기조지만 비용 및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사전적인 안정 조치가 필요함
  - **공공 요금 차등화** : 공공 요금의 시간대별 차등화 등을 통해 가격 인상 파급 효과를 완화
    - 공공 요금을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비싸게 책정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함으로써 공공 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이 효과를 완화
  - **지속적인 유통 구조 효율화 추진** : 식료품 등 가계 생필품에 대한 유통 구조 효율화, 가격 모니터 강화 등을 통해 가격 상승폭 최소화
    - “산지-운송-소비자”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산물 가격 상승폭을 최소화 유도
  - **국제원자재 안정적 확보 필요** : 장기공급계획에 근거한 원자재 구매 확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심리가 커지고 있어 국제원자재에 대한 헤지 필요
    - 국제원자재를 미리 구입하여 재고 충당, 선물 거래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
  - **통화 공급의 안정적 관리** : 통화 공급이 물가 안정 기조를 해치지 않도록 안정적 통화 관리와 생산적 부문으로의 시중 자금 유도
    - 기업인수합병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을 통해 산업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이 이루어져 실물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경기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금리 수준을 산정하여 금리 수준을 유지

임희정 연구위원 (limhj9@hri.co.kr, 2072-6218)